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24

Beautiful day

기획연재

영화<특별시민(2016)과
댄싱퀸(2012)>,
한국적 선거를 영화로
풀다

특별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웹툰

투표백서

파워인터뷰

영화감독 강윤성
하이원스포츠단
스키점프 코치 하성조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의 **현주소**는?



2 민주주의 지수란?

영국의 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수로

5가지 평가항목인

- ①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
- ② 정부의 기능
- ③ 정치 참여
- ④ 정치 문화
- ⑤ 시민의 자유

에서 우리나라는 총 8.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성장해왔을까요?

'2017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무려 4계단이나 상승해 전 세계에서 20위라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일본 23위)이며, 미국(21위)보다 높은 순위라는 결과였습니다.

3

아직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19개국에는 들지 못했지만 **한 단계만 도약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차근차근 쌓아 올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Beautifulday 03. 2018 CONTENTS



- 03p 카드뉴스 민주주의 지수
- 04p 기획연재 영화 속 선거 @ 영화(특별시민(2016)과 단상권(2012)), 한국적 선거를 영화로 풀다
- 06p 특별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 08p 웹툰 투표백서
- 10p 기획기사 '피자게이트' 가짜뉴스의 악영향
- 12p 파워 인터뷰 영화감독 강윤성
- 14p 선거정보 사례로 보는 선거법 '선거운동'
- 16p 특별기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 18p 기획기사 아랍의 봄, 민주주의는 올라
- 20p 파워 인터뷰 하이원스포츠팀 스키점프 코치 하성조
- 22p 선거 따라잡기 한 눈에 알아 보는 지방선거
- 26p 한국선거방송
- 27p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발행일 2018. 03. 02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홍보과
 구독문의 02-503-2792
 ahj0824@korea.kr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불만을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영화 <특별시민(2016)>과 <댄싱퀸(2012)> 한국적 선거를 영화로 풀다

중 무로에서 선거를 소재로 한 영화는 굉장히 드물다. 선거 소재 영화가 드물다기보다 정치를 소재로 한 영화 자체가 별로 기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10년대 들어 박인제 감독의 <특별시민(2016)>과 이석훈 감독의 <댄싱퀸(2012)>, 그렇게 두 편의 영화가 공통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선거 소재 영화에 등장한 가족

최민식과 황정민이라는, 총무로 대표되는 두 불같은 남자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다는 점도 중요한 감상 포인트다. 하지만 두 영화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 외에는 정서와 스타일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먼저 <특별시민>의 종구(최민식)는 노동자 출신으로 현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나서는데 반해, <댄싱퀸>의 정민(황정민)은 운동권 출신의 인권변호사로 영화 속 민진당의 국회의원이자 대학 친구인 종찬(정성화)의 권유로 출마에 생각지도 못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다. 또한, 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욕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데 반해, 정민은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종구 같은 베테랑 정치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입도 벌일 정도로 순박한 소시민에 가깝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명저를 통해 미국정치의 현실을 보여 주었던 조지 레이코프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로 지금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자 방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영화는 그가 창안한 '프레임 분석'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두 영화 모두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이다. 할리우드 등에서 만들어지는 선거영화와 비교해 이른바 '한국적' 특징이라 부를만한 것이 바로 영화에 가족을 등장시키는 방식이다. 여태껏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가족 모두 선거운동에 헌신해야 하고 조그만 악점도 용

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의문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영화에서는 그 구속력이 더욱 더 강해진다. 먼저 <특별시민>에서 종구의 딸(이수경)은 자신이 아버지의 병풍에 지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아무런 애정도 없는 것 같은 아내 또한 기계적으로 그 병풍 역할에 충실하다. 심지어 딸의 차를 가지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그 딸을 희생시키려 한다. 가족은 병풍에서 더 나아가 가장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 후보 진주(라미란)의 아들이자 하버드 출신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이기홍) 또한 어머니의 유세를 물심양면 돕는다. 아무리 '미국식 개인주의' 아래 성장했다고 해도 '등직한 아들내미'라는 표현으로 철저히 한국적 정서 아래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약파티 의혹으로 오히려 어머니의 선거운동에 독이 되고 만다. 물론 그 또한 후보자가 부모로서 감내해야 할 몫이다. <댄싱퀸>은 사실 그 가족 문제가 보다 전면으로 드러난다.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과 화려한 댄스가수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아내 정화(엄정화)가 오히려 남편보다 더 단독 주인공에 가깝다. 왕년에 '신촌 마돈나'로 불렸지만 현재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화는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지만, 케이블TV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 나갔다가 젊은 시절 자신에게 명함을 건넨 대박 기획 실장 한위(이한위)로부터 댄스그룹 '댄싱퀸' 데뷔 제안을 받게

된 것. <특별시민>과 비교하자면 선거를 코미디 장르 안에서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지지울에 민감하게 적용하는, 혹은 가장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는 가족을 '패륜'으로까지 몰고 가는 선거 아래에서 '선거 후보의 가족은 얼마만큼의 개인적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존경받는 정치인 사모님과 고단한 가수 연습생 사이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와 선거의 냉정한 현실

그럼에도 두 영화는 가족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한국 정치와 선거의 냉정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정통 정치드라마와 코믹드라마라는 서로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두 영화는 한국 선거의 민낯을 공유하고 있다. 먼저 <특별시민>의 종구는 선거유세 기간 중에 교통단속에 걸릴 위기에 처하자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을 철폐시키고, 이후 벌어진 자신의 사고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입단속까지 시킨다. 시장이 경찰과 군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묘한 한국적 상황이다. 게다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아기보살을 만나 점을 보는 것 또한 지극히 한국적이다. <댄싱퀸>도 마찬가지다. 준비 안 돼 보이는 후보 정민에게 한국적 해학과 '정(情)'이 통한다.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던 첫 번째 토론회와 달리 두 번째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분유값도 제대로 모르는 타 후보들이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분유값이 비싸면 모유를 먹이면 되지 않느냐"는 타 후보의 황당한 발언에 격분하여 "엄마들이 젖소입니까? 아무 때나 짹 짹 우유가 나오게?"라고 호통치며 유권자들의 웃음을 얻어내고 마음까지 움직인다. 하지만 두 영화가 그려내고자 하는 공통된 테마는 바로 선거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특별시민>에서 종구의 권유로 겁 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심은경)은 종구와 독대하며 잠시나마 '정치 입문'이라는 꿈을 그렸을지 모르나, 과감하게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그 판을 떠난다. 그럼에도 그 표정은 한없이 유쾌해 보인다. <댄싱퀸>의 정민과 정화도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해가며 '마누라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세간의 시선을 넘어 오히려 지지율을 급속도로 높여 간다. 아내의 꿈을 인정하면서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시민>의 종구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감추려고 하면서 괴물이 되어갔다면, <댄싱퀸>의 정민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선거판의 요정이 되어간다. <특별시민>은 진실과 무관하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게 만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그것은 <댄싱퀸>에 더 들어맞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진실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믿게 되어있다'는 평범하고도 비범한 그 '진실' 말이다.



주성철 영화잡지 <씨네21> 편집장
<홍콩에 두 번째 가게 된다면>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우리시대 영화장인) 저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브라질은 축제로 유명한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도 있고 민속 축제인 '페스타 주니냐'도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크고 작은 축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많고 많은 축제 중에서도 특히 자랑할 만한 축제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다. 브라질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시, 주, 연방급 선거가 있다. 2016년에 시장과 시의회 선거가 있었고, 올해 10월에 대통령, 하의회, 상의회, 주지사, 주의회 투표가 기다리고 있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 명이다. 따라서 선거를 한 번 실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브라질 내 유권자의 수는 약 1억4천4백만 명이다. 각각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만 해도 27개고 시는 5570개나 존재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다. 대통령 1

명을 비롯하여, 하의원 513명, 상의원 81명, 주지사 27명, 주의의원 1059명, 시장 5570명, 시의원 5만7천명이다. 브라질의 선거가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브라질에서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가 많다. 한국의 투표 가능나이인 19세와 비교하면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역시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한국과 또 다른 점은 선거 참여가 의무라는 것이다. 16세부터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이지만 18세부터는 선거가 의무화 된다. 그래서 투표율이 80%가 넘는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야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



선거라는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를 성공시키려면 축제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 후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하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미있는 것은 투표 전날 술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의무투표를 실시하다 보니, 사람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술김에 아무에게나 투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선거에서 자랑할 점은 전자투표다.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거 현황을 볼 수 있다. 덕분에 남미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4시간 안에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 선거는 캠페인이 아주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래도 만들고, 공연 같은 것도 펼친다. 이러한 점은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선거운동기간에 한국 길거리에서 응원가에 맞춰 안무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고향 생각이 뭉클 나곤 했다.

축제의 성공은 참가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선거에서 부러운 점은 선거구가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구가 없다. 그저 같은 시, 주 안에서 모든 후보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한 의원이 한 선거구를 대표하는 만큼, 동네 주민들과 소통이 더 잘 이어지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 모든 축제가 그러하듯이, 축제의 성공을 가르는 것은 축제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과정을 즐겼느냐에 있는 것 같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다. 후보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는 우리부터 이어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이 아름다운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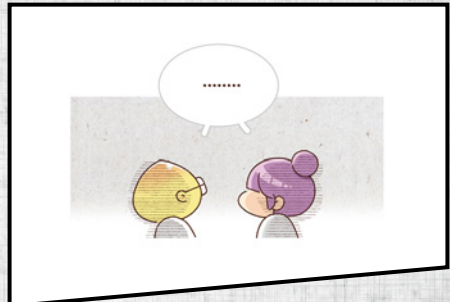
카를로스 고리도
브라질 대사관 근무
2015~2016 JTBC <비정상회담> 시즌 1 브라질 대표,
그 외 다수 방송 출연 중

투표백서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환타스틱 강환타의

by Kimfanta





‘피자게이트’ 가짜뉴스의 악영향

작년,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 가짜뉴스(FAKE NEWS)! 설마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뉴스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만큼, 팩트와 혼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선거철이면 특히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피자 게이트’ 사건을 통해 알아보까요?

미국의 ‘피자 게이트(Pizza Gate)’ 사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짜뉴스를 기억하시나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는 96여만건이 공유될 정도로 급속도로 퍼졌으며, 일명 피자 게이트라고 불리는 가짜뉴스는 이를 믿은 한 청년에 의해 충격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아동 성착취조직에 연관되어있고, 그 장소가 바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피자가게인 ‘카밋 핑퐁’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2016년 10월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SNS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자 평범한 피자가게였던 ‘카밋 핑퐁’은 음모론자들에게 각종 협박과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12월 4일, 에드가 웰치라는 청년이 갑자기 피자가게 안으로 들어와 충격사건을 벌입니다. 그는 피자가게의 지하실에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가게에는 지하실조차 없었고 그는 끝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짜뉴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범죄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팩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자 게이트가 가짜뉴스로 판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유포되어 이를 믿게 된 사람이 충격사건까지 벌인 것처럼 말이지. 심지어 이런 가짜뉴스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죠. 이에 독일은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서비스로 가짜뉴스에 경고문구를 달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프랑스는 가짜뉴스 추방 협력체인 크로스 체크를 구성하기도 했죠. 올해 대선이 치러지는 브라질 역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는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안목,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뉴스라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유권자는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뉴스라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공보,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 후보자토론회 중계 등을 확인하여 후보자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범람하는 가짜뉴스에 휘둘리기 보다는 후보자의 정책을 살피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자신의 손으로 찾고, 선택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총무로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을 만나다!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과의 인터뷰

“내 전화 왜 아이 받니?” 라는 유행어, 기억하시나요? 2017년 한국 영화계의 최고 다크호스 '범죄도시'의 가장 핫한 인물, 강윤성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성 감독님! 정말 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근황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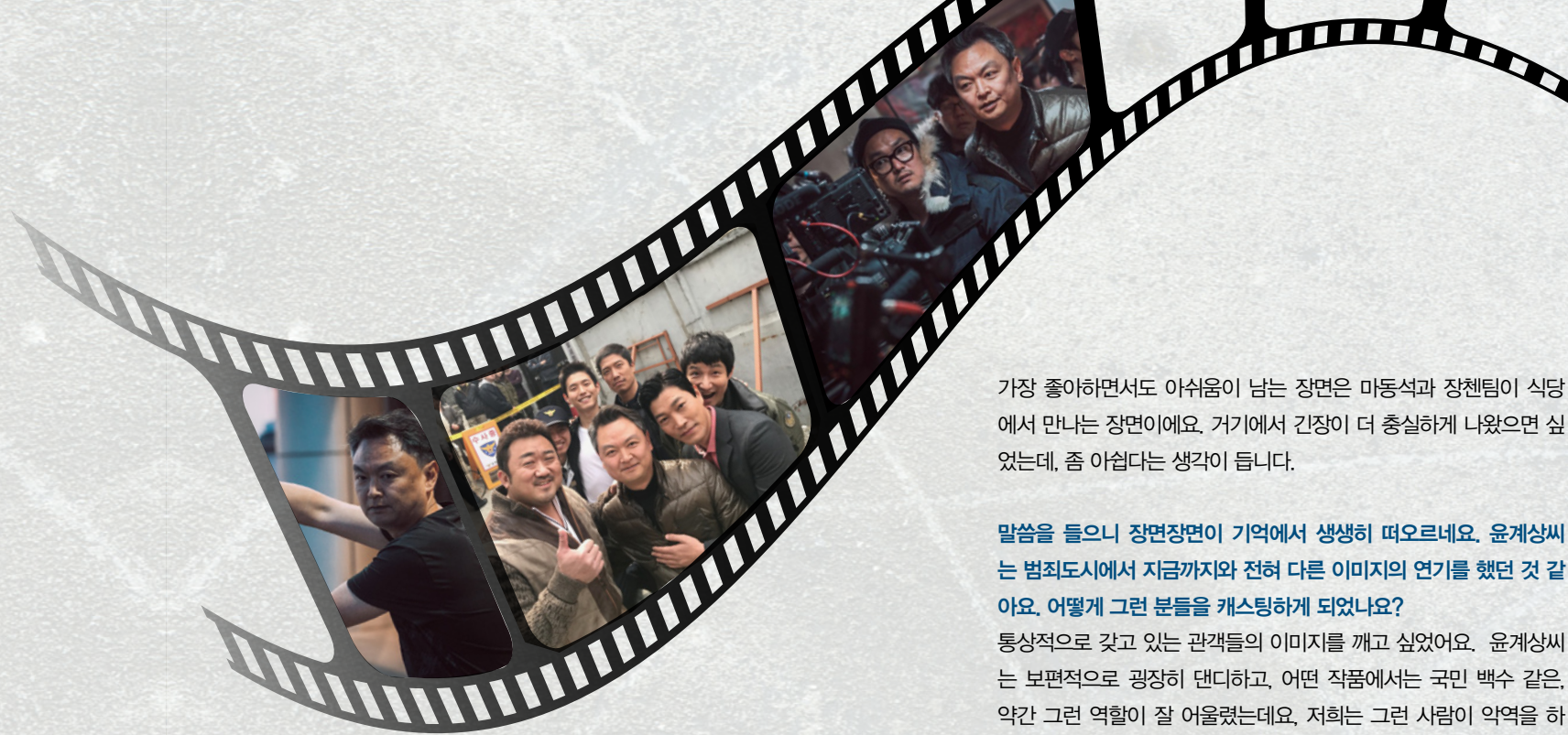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감독 강윤성입니다. 지금은 범죄도시 홍보 등 관련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새로운 영화 '롱리브더킹'이라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감독님의 경력이 조금 특이하던데요,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이랑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덕화 선생님이 나온 토크쇼를 보고, 연극배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세계 자체를 알지 못했었죠.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동아리가 연극동아리였는데 연극동아리가 문을 닫아서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영화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고 영화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입문기이네요. 감독님을 얘기하자면 작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범죄도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감독님의 데뷔작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입봉을 준비하신 기간만 해도 17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서른 살이었을 때 영화감독으로 데뷔할 기회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영화를 준비하다 었어졌는데, 이후에도 계속 상업영화를 준비했지만 무산됐어요. 사실 30대인 10년 동안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힘들고 외롭진 않았는데, 40대가 되고 나서는 친구들과 비교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 좀 힘이 들더라고요. 영화 '범죄도시'도 준비를 3년 정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 되자 정말 그만두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엔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흥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영화평론가 신인 감독상을 받으셨는데요, 영화평론가협회의 상인만큼,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 바람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영화가 흥행이 아주 잘됐어요. 거기다가 평론가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질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진석규씨나 임형준씨, 김성규씨처럼 그 전엔 빛을 보지 못한 배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섭외하신 의도가 따로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캐스팅계획을 잡은 게 주연배우 4명을 빼고는 신인배우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민게끔 보이려면 그 전에 알려진 배우보다는 신인배우가 진짜같이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얼리티가 더 살았던 것도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건 현장의 분위기가 좋아서였겠죠?

전체적으로 현장이 열려있는 분위기였어요.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들을 가져오고 준비해왔던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니 더 욕심 내서 열심히 해줬고 또 팀워크를 발휘해 모두들 자기역 할이나 장면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녹여져 생동감 있는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장면이나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어려웠던 씬 중 하나가 장첸이 피로연장에서 장이수를 공격하는 장면이었어요. 혼자서 끝이 안 보이는 상대역들을 해치우면서 마지막 장이수까지 다 제압해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었어요. 초반에 3테이크를 찍고 윤계상씨가 이미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휴식을 취하고 더 찍겠다 해서 총 5테이크를 찍었어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남네요.

가장 좋아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장면은 마동석과 장첸팀이 식당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긴장이 더 충실하게 나왔으면 싶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 장면장면이 기억에서 생생히 떠오르네요. 윤계상씨는 범죄도시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캐스팅하게 되었나요?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관객들의 이미지를 깨고 싶었어요. 윤계상씨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단디하고, 어떤 작품에서는 국민 백수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이 잘 어울렸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악역을 하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런 면에서 윤계상씨가 잘 어울렸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봤던 거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차기작으로 롱리브더킹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원작이 웹툰인데요. 원작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건달의 이야기인데 영화는 목포의 건달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나리오 작업단계이고, 완료되면 주연배우 섭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섭외가 잘된다면 촬영은 아마 5~6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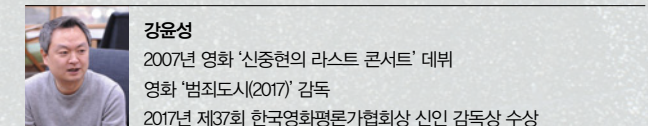
감독님께서 평소 선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 정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거진 독자들을 위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기적인 롱리브더킹이 선거, 정치와 관련된 영화이다 보니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막상 한국에서의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 현재는 많이 깨끗해지고 공명선거가 정착되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도 공명하고 정당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신 강윤성 감독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차기작 롱리브더킹의 순조로운 작업과 흥행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림우 기자(좌측) 촬영, 배아 ©

“동창모임에서 나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 견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1

선거법,
그것을
알려주마!

2

바쁜 직장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A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문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3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학교 선배인 김OO이 당선 되었으면 좋겠다.”

“난 꼬리를 자르며 이번엔 꼭 당선되길 바람!”

“남반스가 더 좋았는데, 이번 공약이 맘에 들더라고.”

혹신나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도와줘요!

4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동창모임에서 A와 B가 이번 지방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견해 표현에 대하여 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 보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리는 등의 범위를 넘어 참석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찍어 달라”는 등 지지·호소에 이를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지호소는 안돼요!

6

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위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태양·행위자의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7

여기서 잠깐!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상시 가능하답니다. 단,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안되겠죠?

8

오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도 다시 초록빛의 풀이 자란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집을 그리고
 애처로이 거닐었던 길.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 앞, 철조망 뒤의
 푸른 풀 속에 가녀리게
 핀 들꽃 무더기가 바람에
 날린다. 차가운 이곳
 땅에도 햇볕은 들고, 풀과
 꽃들이 푸르게 피어난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수천수만 켤레 신발들이 쌓여
 웅성웅성 떠들고 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양심이니 평화니 반전이니 우애니
 이 신발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지만
 어쩌면 이 신발들은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경림, 아우슈비츠의 신발들 중

특별기고 ·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체 코 프라하에서 폴란드 크라쿠프로 향하는 5달러짜리 버스
 안에서 고민에 눈이 침침해졌다.

마침 싸게 뜬 버스표 덕에 폴란드로 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곳에는 대체 뭐가 있는지도, 나는 어느 곳을 여행할지도 뭐하나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능숙한 배낭여행자가 된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우선 터미널 근처의 호텔에 짐을 풀고, 숙소 앞의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잔뜩 산 뒤 배낭 속 품어 놓은 간장과 쌀을 꺼내어 냄비 밥을 짓고 야채볶음을 만든다. 갓 지은 밥 한 숟과 윤기가 도는 야채볶음을 저녁시간이 오기 조금 전 미리 만들고 다른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오후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굶주림에 핏빛은 여행자들이 하나 둘 숙소로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상을 차리고는 식사에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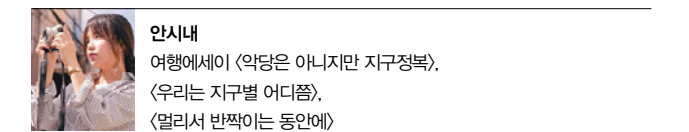
“안녕! 난 한국에서 왔어. 혼자 여행 와서 친해지고 싶어서 한국식 요리를 준비했는데 같이 먹지 않을래?”
 형식적인 말로 운을 띄운 후,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이곳에는 무엇이 재밌는지, 또 어떤 밥집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었는지 우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수다를 떠다.
 ‘크라쿠프는 아우슈비츠 때문에 들른 거야!’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친구는 여행을 끼는 투어는 시간이 짧아 좋지 않다며 아우슈비츠(오시비엠킴)까지 가는 버스와 그곳에서 또 어떻게 가는지, 분명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며 이것저것 메모지에 잔뜩 글을 적어준다. *다크투어리즘이 처음은 아니었지

*다크투어리즘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만, 문득 떠오른 인생은 아름다워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에서 본 회색빛의 잔상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채비를 했다. 카메라를 챙기고 친구들이 준 메모를 다시금 꼼꼼히 읽으며 좁은 밴 버스에 몸을 부대끼며 선잠을 청하니 어느새 오시비엠킴이라고 외치는 기사의 목소리에 나를 깨웠다. 꽤 따뜻한 날씨와 달리 어쩐지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내리니 드넓은 수용소가 펼쳐졌다. 녹슨 철조망 뒤로 푸르른 풀들이 펼쳐진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아우슈비츠를 온전히 걸어 내려간다. 비석 위에 놓인 아직 시들지 않은 꽃 한 송이 앞에서 그들과 같이 기도를 드려본다.

아우슈비츠에 부는 따뜻한 바람

사진 속 똑같은 옷을 입고 싱그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벽들에 잔혹하게 남은 비래어진 손톱자국들을 지켜본다. 무더기로 쌓인 같은 무늬의 옷들과 다양한 크기의 신발들을 지켜본다. 이제는 멈추어버린 녹슨 기차를 바라본다. 이곳은 아무리 걸어도 내 짧은 다리로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이곳을 누군가들은 집을 그리며 애처로이 거닐었을 것이다.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 앞에는 독일인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본다. 따스하고 아름다운 크라쿠프와 대조되는 적막함 속을 걷다 문득 땅을 보았다. 철조망 바로 뒤의 푸른 풀 속에 가녀리게 핀 들꽃 무더기가 낮은 바람에 날려 고개를 까딱까딱한다. 마치 침울한 표정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참 어여쁘게도 피어났다. 꽃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의 사람들, 죄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을 나는 바라본다. 차가운 이곳의 땅에도 여전히 햇볕은 들고, 풀과 꽃들은 푸르게 피어나고, 낮과 함께 찾아 들어온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 이곳에도 다시 초록빛 풀이 자랐다.



안시내
 여행에세이 (약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우리는 지구별 어디쯤),
 (멀리서 반짝이는 동인에)

아랍의 봄, 민주주의는 올까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서 봄은 나라의 주권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계절임과 동시에 더불어 정치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프라하의 봄', '서울의 봄', '양곤의 봄' 등이 바로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봄이 왔다고 해서 봄이 무조건 자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겨울 속에서 헤매는 듯한 '아랍의 봄', 과연 민주주의는 이곳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랍의 봄이란?

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일어난 중동, 북아프리카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입니다. 아랍의 봄(Arab Spring), 아랍 각성, 아랍 혁명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아랍권 국가들은 독재와 부패, 전제군주, 빈부격차, 인권침해, 청년실업은 물론 기근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 등으로 자유로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젊은이들은 정부의 태도에 반감이 커지고 있었죠. 그러던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노점상을 해야만 했던 현실에 튀니지 청년들은 분노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 현 정권에 불만을 품고



아랍에 봄이 왔다고 아랍 국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자리잡기까지는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여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로 번졌고, 당시 튀니지 대통령이던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며 민주화 운동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및 아랍권에서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이 운동은 '재스민 혁명'으로 불립니다.

그 후,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이집트, 알제리,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등 인근의 나라에도 민주시위가 확산되는데, 이집트에서는 독재를 이어오던 무하마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였고,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정권에서 내려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아랍의 겨울

아랍의 봄이 왔다고 해서 아랍 국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튀니지는 2014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베지 카이드 에셀시 대통령을 선출하여 민주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와 높아지는 실업률에 새로운

시위가 진행되었고 이에 정부는 빈곤층 지원에 대한 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임시방편으로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러나 튀니지의 민주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집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정부 상태에서 내전이 계속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활동으로 관광수입이 줄어든 것도 아랍 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의 봄 이후 벌어진 내전이나 사회 혼란, 대립, 경제 문제 등으로 야기된 양상은 아랍의 겨울이라는 타이틀로 불리고 있는데, 이 겨울은 하루이틀 만에 정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튀니지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아랍의 봄과 겨울을 모두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곧바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단 7년 만에 나타난 이 현상들을 성공이나, 실패나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 확실하나 이 또한 민주주의, 즉 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요? 빨리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을 꽃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스키점프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목, **스키점프** 를 만나다!

하성조 전 국가대표 코치 (현 하이원 스포츠단 코치)와의 인터뷰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정말 매일 큰 화제를 모으며 세계인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키점프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2009년 스키점프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국가대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관심이 이번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이원 스포츠단 스키점프 하성조 코치(전 국가대표 코치)를 만나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조 코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코치이자 현재 하이원리조트 스포츠단 스키점프 코치 하성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점프 팀에서 코치를 맡고 계신데요, 스키점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에 스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알파인 스키로 시작했다가 부모님과 스키점프 감독님의 권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스키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점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키점프의 매력은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운동을 하는 특별함? 그리

선거와 스키점프는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듯 스키점프도 많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맨몸으로 어떠한 기계의 도움도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흥분? 하늘을 날 때 바람을 맞고 날아가는 느낌은 점프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덕분에 스키점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늘을 가르는 멋진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모델이 된 선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실생활에서 선수들은 영화랑 비슷한가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선수들의 실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 성격은 다들 활발하며,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색깔이 다릅니다. 특징이라면 훈련할 때의 진지한 모습과 운동후의 자유로움이 확실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기장 이면에서의 선수들 각각의 모습이 궁금하네요, 코치님이 데리고 있던 선수 2명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걸로 아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번 올림픽 출전 목표는 3명의 선수 전원이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명 중 2명의 선수, 최서우, 김현기 선수만이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마음 한구석이 아프네요.

네, 그렇군요.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스키점프 경기에서 또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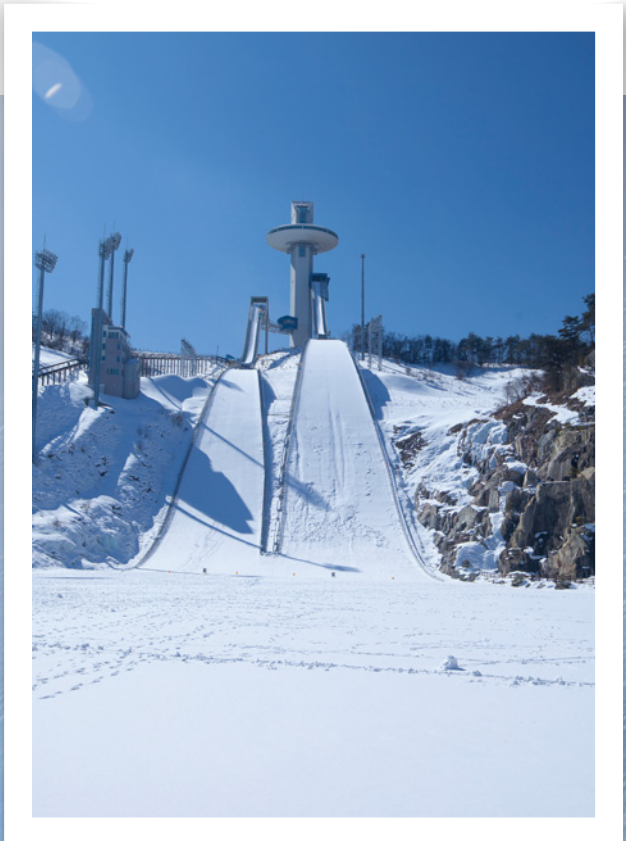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 아닐까 생각해요. 정직하게 생활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돼요.

올해 6월 1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투표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지방선거 날짜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항상 투표를 해왔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잊지 않고 투표할 예정입니다.

스키점프와 선거에서 공통점을 찾다면요?

선거와 스키점프의 공통점이라...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 공통점은 국민들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거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키점프도 많은 대중이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준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선수생활을 실제로 하신 분이려 마음에 더 와 닿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하성조 코치님이 생각하는 투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투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투표를 통해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매거진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스키점프 등 설상종목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메달에 상관없이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성조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잘 대답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하성조 전 스키점프 국가대표 코치(현 하이원 스포츠단 코치)
2011~현재 하이원리조트 스포츠단 코치
2012~2016.03 국가대표 코치

한 눈에 알아보는 지방선거



1 선거일 및 임기

- ◎ 선거일 : 2018. 6. 13.(수)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
- ◎ 선거기간 : 2018. 5. 31.(목)~6. 13.(수) [14일간]
- ◎ 임기 : 4년(2018. 7. 1.~2022. 6. 30.)

2 후보자 등록

- ◎ 등록기간 : 2018. 5. 24.(목)~5. 25.(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 기탁금액

선거명	기탁금액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후보자(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순, "1, 2, 3" 등으로 표시합니다.
 -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초의원지역선거구(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 기호는 표시하지 않음.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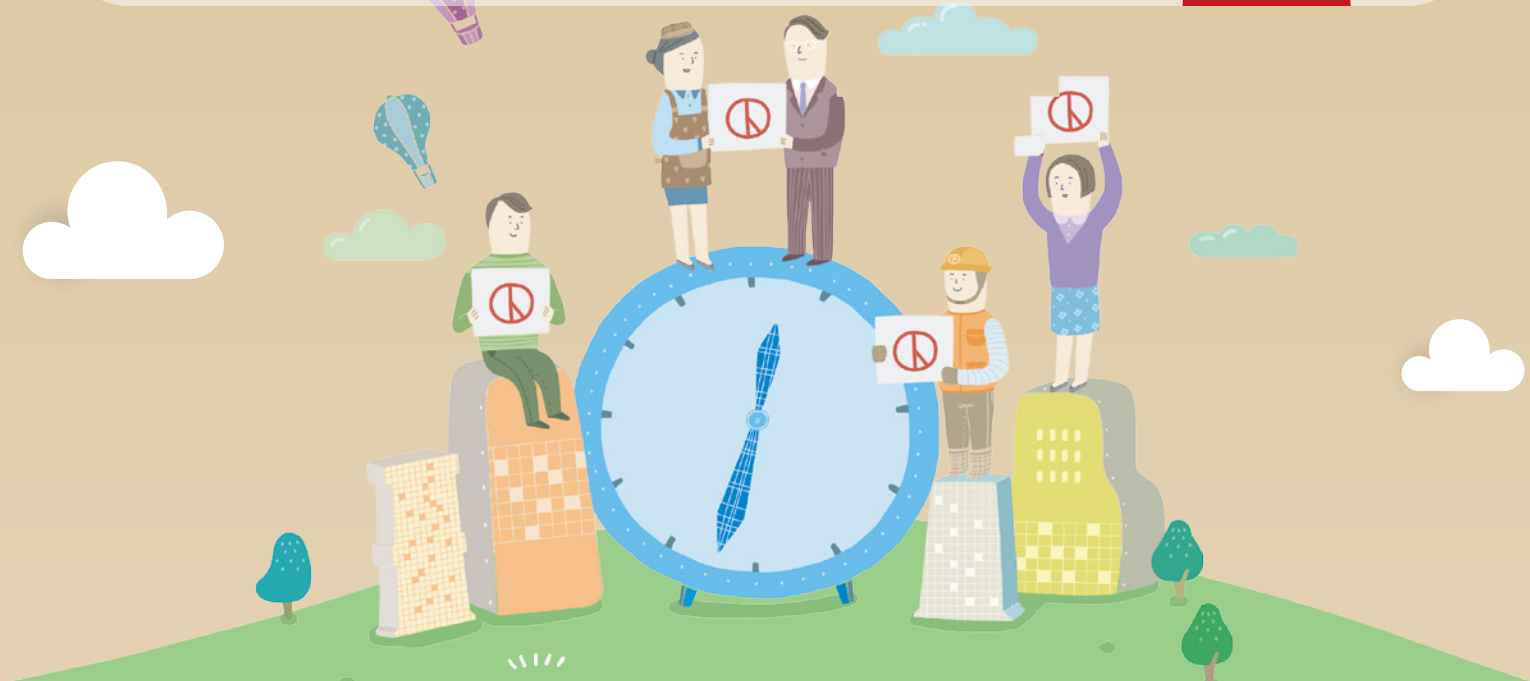
3 선거운동

- ◎ 선거운동기간 : 2018. 5. 31.(목)~6. 12.(화) [13일간]
- ◎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8. 5. 30(수)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4 투표 및 개표

- ◎ 사전투표
 - ㉠ 투표기간 : 2018. 6. 8.(금)~6. 9.(토) [2일간]
 -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 ㉣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일 투표
 - ㉠ 투표시간 : 2018. 6. 13.(수) 오전 6시~오후 6시
 - ㉡ 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 ㉢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한 눈에 알아보는 지방선거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 시·도교육감선거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장선거
-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인분증 제기해주세요~^^

선거 별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7개 선거(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5개 선거(1인 5표)

제주특별자치도

1차
 ■ 교육감선거
 □ 도지사선거

2차
 ■ 교육의원선거
 ■ 지역구도의원선거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투표용지(2종) 교부

4개 선거(1인 4표)

세종특별자치시

■ 교육감선거
 □ 시장선거

■ 지역구시의원선거
 ■ 비례대표시의원선거

투표용지(4종) 교부

주의하세요!

-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부터 5.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부터 5.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 31부터 6. 1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1까지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부터 6.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13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KT Olleh TV channel 273번

T broad channel 205번

한국선거방송

관용의 시대를 보는 선거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꿈꾸는 선거인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선거 관련 온·오프라인 접점

※ 한국선거방송은 모바일(www.etv.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히혁
생활 속에도 민주주의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건 시도 해봐야겠어요.

선사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별빛한스문
올해도 중요한 선거가 기억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꾼을 뽑는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영민재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이팅!

dragonhn
우리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할 전국동시지방선거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주권을 실현합니다.

slide door
민주주의의 꽃 선거 지방선거 참여율도 역대급으로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쌌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동화
선거가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응원을 기대해봅니다.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오늘은내가쓴다
우리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진정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